박원자의 母情佛心 25 연화원 대표 해성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장애인 포교를 선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불연을 맺었다. 고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만난 불교에서 '평등'을 만났고, 이에 감화돼 스님이 된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이내 스님을 따라 신실한 불자가 된다. 특히 어머니는 공양주를 자처하며 스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님, 제가 공양주 하겠습니다"



그림 · 박구원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을 운영하며 불교의 평등과 자비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해성 스님의 출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따라 다녔던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어머니는 딸 스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딸이 출가할 때 어머니도 함께 출가한 셈이다.

초등학생인 어린 딸은 어머니가 절에 갈 때면 따라나섰다. 5리 정도의 길을 타박타박 걸어 나룻배를 타고 내려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정릉의 조그만 절에 가는 길이 즐겁기만 했다. 어머니가 법당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이 절 마당에서 또래들과 뛰어놀았다. 중고등학교 때도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 오며가며 어머니가 일러주셨다.

"건강하고 공부 잘하려면 부처님이 도와주셔야 해. 시험 보다가도 생각 안 나면 '나무묘법연화경'을 외우렴."

나중에 출가해서 보니 어머니는 법화종 사찰에 다니셨는데, 불교가 무언지 몰랐어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덕분에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출가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절을 찾기 시작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학력에 대한 차별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다. 학력 차별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실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고통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염불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휴가 때 친구들과 놀러간 절에서 스님들이 한 방에 둘러앉아 발우공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회사의 사장은 대면조차 할 수 없고 과장 앞에서도 고개 한번 들지 못하는데, 이곳은 노스님, 어른 스님, 젊은 스님 할 것 없이 빙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충격이었다. 곁에 있던 한 스님에게 어떻게 어른들이랑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절집의 생활은 완전한 평등사상 위에서 이뤄진다는 대답을 해주었다.

그날 들었던 '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숙이 들어와 출가로 이어졌다. 모든 생명이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부처이기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이 신선했다. 든든했다. 계급화로 이루어진 불평등한 사회에서 고생하지 말고 출가해서 평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멋있게 살아보자고 결심했다.

그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며 절에 다녔어도 어머니는 출가 이야기에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맏딸을 결혼시켜 손주 보기를 원했던 아버지는 눈물까지 비치시면서 반대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의 출가는 인생에 대한 실패라는 흔적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는 세계였다. 그러나 출가해서 평등한 세계에서 살고 싶은 결심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 어머니는 '부처님과 결혼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다니던 절의 스님의 위로에 겨우 마음을 추스렸다. 그리곤 절에 가서 덮고 잘 명주 이불을 만들어주었다. 스님은 이 이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막상 허락을 하고 절로 보냈어도 어머니는 오래도록 딸의 출가를 서러워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니'라는 말을 여러 번 내비쳤다. 아버지는 자신의 박봉의 공무원 월급 때문에 대학을 보내지 못해 맏딸이 결혼 대신 출가를 선택한 한 것 같아서 몹시 미안해했다.

어머니는 딸이 출가해서 강원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활동으로 불교의 '평등사상'을 실현하는 동안 딸 스님보다 더 열심히 신행생활을 했다. 새벽에 일어나 경전을 읽고 출가한 자식이 만인을 위한 보살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는 사이 남은 자식들 모두 불교에 귀의했고 남편도 경전을 보며 신심을 키워갔다. 딸 스님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딸 스님과 합류해 출가 아닌 출가생활을 시작한 것은 스님이 장애인들을 위한 법회를 하기 위해 법당을 마련했을 때였다.

"사랑의 전화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에 눈을 떴어요. 수녀들, 젊은 타종교인들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했죠. 수녀가 운영하는 장애아동 시설에 가서 봉사할 때, 중증장애인들을 목욕시키고 밥을 떠먹여주는 수녀들의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보살행에 대해 생각했죠.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시설에 봉사를 하러 가면 '스님도 이런 곳에 오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불교계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거의 전무할 때였어요. 30여 년 전 청각장애인 교회가 전국에 200여 개 곳이고 우리는 3개였죠. 지금도 그래요. 사실 경전의 내용도 모두 상담과정이잖아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를 배우고 공연도 하다가 그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회를 열기 위해 법당을 마련하기로 했죠. 그때 어머니가 공양주를 자청하며 들어오셨죠."

> **어머니와 사찰 다니며 불교 인연**
> **고교졸업 후 취직하니 학력 차별**
> **평등한 불교 감명… 출가 결심해**
> **맏딸의 출가에 부모님 극구 반대**
> **이내 부모 · 가족 신실한 불자로**
> **모친 공양주 자처하며 신행 생활**

어머니는 법당을 청소하고 밥을 지어 신도들과 딸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남은 시간엔 기도만 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제가 수행자로서 약해 보여요. 아버지도 계신데 집으로 돌아가세요."

"스님, 제가 공양주 역할이라도 하고 싶어요. 공양주 월급으로 나갈 돈을 장애인들 후원하시는 데 쓰세요."

어머니는 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딸 스님과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다. 절에 필요한 물건들도 만들어냈다. 스님이 수화를 배우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봉사를 하러 다니는 동안 절을 지켰다. 그리고 절에 오는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보살폈다. 그렇게 함께 한 세월이 25년이다. 언젠가는 남동생이 집으로 모셔갔는데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다. 절 생각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것이다.

스님은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한 자식 출가에 9족이 승천한다고 했고, 자신의 출가로 인해 온 가족이 불자가 되었으며 동생들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알았다. 죽는 순간까지 자식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열이면 열, 나 좀 빨리 낫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어머니들은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아들딸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아, 우리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런 마음이구나' 싶었죠. 병원에 법당을 만들어 법회를 보면서 만난 어머니들도 똑같으셨어요. 오로지 자식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문안와주기를 바라죠. 그 후로 스님들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라고 권했어요. 자신의 어머니한테 효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부모은중경〉을 강의하겠느냐고 했죠."

오로지 자식에 대한 헌신으로 일생을 사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스님은 어머니에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시를 쓰기 시작했다.

금빛 노을 내려앉은 산자락/ 나부끼던 수풀 가뿐 숨을 삼키고/ 뭉게구름 쉬어가는 고요한 산사/ 땡그렁 땡 땡그렁 땡/ 처마 밑 물고기 바람에 기대어/ 눈물 소리로 나를 부른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라며 잔잔한 미소로/ 어루만져주시던/ 어루만져주시던 어머니 어머니/ 잡은 손 뿌리치고 돌아선/ 이 자식 그리워 가슴 조이며/ 황혼 빛 그늘에서/ 옥 같은 모습 사라진 어머니/ 긴 세월 불효함에/ 가슴 깊이 묻어둔 눈물 감추며/ 풍경소리에 어머니의 사랑담아/ 바람에 실려 보낸다

이 시에 작곡하는 능인 스님이 곡을 붙이고 스님이 노래를 직접 불렀다. 이 곡은 〈어머니의 풍경소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 많은 자식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이 곡 말고도 스님이 가사를 만들고 노래해서 세상에 선보인 곡이 많다. 음반도 여러 개 나왔다. 딸 스님이 주관하는 '수화사랑 음악회'에 오실 때마다 노래하고 수화하는 스님을 보면서 어머니는 눈물 짓고는 한다.

"너무 고맙고 좋아서요."

이제 어머니는 출가한 딸을 더 이상 애처로워하지 않는다. 장애인들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는 딸 스님을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97세의 어머니는 다음 생엔 출가자가 되어 딸 스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발원하고 있다. 딸이 출가함과 동시에 자신도 마음으로 출가해 함께 힘껏 수행하고 보살행을 하면서 어려운 장애인들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어머니와 해성 스님이 계신 광림사에서는 법회 때 이렇게 인사한다.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라는 뜻의 염불이다. 이렇게 염불하는 동안 모두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겠다 싶다. 스님이 운영하는 연화원이라는 이름처럼.

〈작가〉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